

2026. 4. 18.(토)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동물원장	여용구	02-500-7002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02-500-7701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grandpark.seoul.go.kr/	

서울동물원 제4기 동물해설사 출범,

“시민과 동물을 잇는 전문 해설 본격 확대”

- 3.31.(화) 위촉식 개최...신규 17명 포함 총 41명 본격 활동 시작
- 사육사·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교육·선발해 해설 전문성 대폭 강화
- 3년간 연평균 3만 7천 명 성과... 시민 중심 ‘교육형 동물원’ 가속화

-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은 지난 3월 31일(화) ‘제4기 동물해설사’를 위촉하고, 시민들을 위한 전문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제4기 동물해설사는 총 41명으로 기존 활동 인원 24명과 엄격한 양성 과정을 거쳐 새롭게 선발된 17명이 추가되었다. 이번 4기 신규 해설사 모집에는 총 53명이 지원하여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17명이 선발되었다.
- 특히 이번 제4기 동물해설사는 서울동물원의 사육사, 수의사 등 전문 인력 강사로 구성된 자체양성교육 과정을 통하여 엄선된 인원이 선발되었으며, 동물 생태와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대중 소통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로 구성됐다.

- 과거 3기 해설사가 KAZA(the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던 것과 달리, 이번 4기는 서울대공원이 직접 모집부터 대면 강의, 필기 및 실기 시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했다.

□ 위촉된 해설사들은 앞으로 서울동물원 전시 구역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생태적 특성 ▲멸종위기 현황 및 환경보전 메시지 등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서울동물원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만 7천 명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달성하며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인 해설사 양성과 전문 교육을 통해 시민 중심의 교육형 동물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주요 운영성과

- (2025년) 21개 프로그램 37,308명 교육 (목표대비 107%)
- (2024년) 23개 프로그램 36,649명 교육 (목표대비 105%)
- (2023년) 23개 프로그램 38,560명 교육 (목표대비 110%)

□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동물해설사는 시민과 동물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며 “자체 양성과정을 통해 제4기 해설사들의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시민 중심의 교육형 동물원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3.31.(화)에 열린 2026년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위촉식 현장 사진



▲ 동물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1



▲ 동물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 2



▲ 동물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 3